

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<b>2026년 7월, 출범 확정</b><br><b>제물포구·영종구</b><br><b>서구·검단구</b> |  | <b>보 도 자 료</b>         |  | <b>이제는 인천입니다</b><br><b>2025 APEC INCHEON</b> |
| 배포일자   |  | 2024년 5월 9일(목)<br>총 2매 |  |  |
| 담당<br>부서   | 환경안전과  | 담 당 자                  | • 생활환경 팀 장 김태형 ☎440-3541<br>• 담당자 서미정 ☎440-3542                    |  |
| 사진(이미지)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           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|  |
| 보 도 시 점 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
## 인천시, 산업단지·공장 등 130곳 토양오염 조사

- 오는 10월까지, 지난해보다 10개 지점 늘려 실태조사 실시 -
- 표토는 물론 심토까지 시료 채취해 23개 항목 검사 -

인천광역시는 토양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13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올해 실태조사 지역은 토양전문기관, 인천보건환경연구원, 군·구와 함께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총 130개 지점을 조사할 예정으로,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.

시는 잠재토양오염원 시설을 사전에 조사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토양오염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.

특히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, 교통관련 시설 지역 등 중점오염원 78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21개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, 이외에도 공장폐수 유입 지역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.

먼저 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에서 GPS를 활용해 조사 지역의 시료를 채취하는데, 이때 매설물탐사는 물론 표토 및 심토(0~5m까지) 시료 채취도 병행한다.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지점 및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와 심토의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을 검사한다.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「토양오염 우려기준」 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, 군·구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는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·복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취할 계획이다.

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“토양오염은 확인이 어렵고 한번 오염되면 토양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토양오염 사전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, 깨끗한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쓰겠다” 고 말했다.

#### <관련사진>

